

In Memory of Il-Se Chang

故 張一世 先生을 追慕하며

故 人의 冥福을 빌며

金 世 翊
梨花女大教授

지난 2月 초순경 어느 추운 겨울 밤에 장춘동에 있는 영빈관에서 있었던 졸업생들의 사은회자리에서 張一世氏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병에도 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입원도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때 나를 약간 긴장시킨 것은 그의 병명이 걸다는 데 있었다. 대개 병명이 길고 복잡하면 그것은 심상치 않은 병이라는 것이 의학지식이 전무한 나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사은회를 빨리 끝마치고 그걸로 그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소파」에 앉아있는 그의 얼굴에는 병색이 완연하고 악수하는 손의 힘도 몇일 전의 그의 것이 아니었다.

「추운데 어떻게 왔소?」 하는 그의 말에도 힘이 없다. 나는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할만큼 몇 일사이에서 그는 변해 버렸다. 한달에도 몇 차례씩 어떤 때는 계속 매일 만나서 무교동에서 소주를 마시고 때로는 고오스틀도 즐기던 오랜 세월동안 그는 우리들 중 누구보다도 「스태미나」가 왕성한 사람이었다. 그의 나이에 비해 그는 모든 점에서 놀랄만큼 팔팔한 사람이었고 그의 정력적인 체력을 우리가 부러워 하고 시기까지 할 정도였는데 몇일 사이에 이렇게도 변한 것을 보고 얼른 말문이 열리지 않았다.

「빨리 나아서 같이 한잔 해야지」 어떨질에 별로 실감 나지 않는 말을 했다. 그는 나의 손목을 힘없이 잡은채

「암 그래야지. 이제 병명도 확실해 졌으니 몇일동안 집중적으로 치료하면 되겠지」라고 말한다. 그가 알고 있는 병명이란 사실은 진실이 아니었던 것 같기에 더욱 가슴 아프게 들렸다. 몇일 후에 그는 정말 퇴원했다. 주위에서는 기적이라고도 했고 의사가 오진했다고 들었다. 어쨌든 병이 나아서 퇴원한 그를 맞이해서 곰탕도 먹고 설령탕도 먹으면서 그럭저럭 전과 같은 상

태가 되었고 그동안 쉬던 직장에도 나가게 되어 우리들은 정말로 다행스럽게 생각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다시 입원했다. 그리고 그는 갔다. 이 세상에서 또 우리에게서 영원히 떠나고 말았다. 그는 평소애 자기는 「선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익살을 부렸지만 오랜 기독교인이었고 교회의 집사직도 오래 맡고 있는 착실한 그리스찬이었다. 기독교적으로 볼 때 그는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결으로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 간것 뿐이다. 하나님은 그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가 다시 불러가신 것뿐이다. 장일세. 그는 정말 우리에게서 영영 떠난 것일까? 아니다 잠시동안 헤어진 것뿐이다.

1961年 9月초에 나는 처음으로 張一世氏를 만났다. 전부터 피차에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실물은 서로 처음 보게 되었다. 그때 나는 지금 있는 학교에 시간강사로 출강하게 되었기 때문에 司書長으로 있는 도서관 整理室에서 그를 만났다. 아마 그 때가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있다가 「피 바디」대학에서 수학하고 돌아온지 얼마안된 때인듯 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질하고 몸매도 산뜻하게 보이는 그의 안경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날카로와서 처음보는 인상이 才士型이었다.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의 말투에도 俗氣를 찾아 볼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그때부터 그와 나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이가 되었다. 그 무렵 그는 司書長일과 새로 생긴 도서관과의 강의에 정열적으로 임하고 있었다. 이미 學校圖書館에 관한 冊도 펴냈고 또 그 유명한 著者記號表 완성에 東奔西走하고 있었다. 예나 지금이나 별로 아는 것이 없는 半教授인 나는 그에게서 계몽되고 계발되는 바가 적지 않았다. 그는 實力있는 「라이브러리안」이고 일꾼이었다. 그는 才士에다 노력도 하는 實力派다. 나의 좁은 소견으로도 그는 우리 館界에서 가장 실력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에 틀림없다. 그후의 그의 눈부신 활약상을 보더라도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그는 도서관 일은 말할 것도 없지만 여러가지 점에서 나보다 월등한 사람이었다. 옛날에 같이 퇴근하면서 자주 드나들던 당구장에서 그의 「핸디」는 200이고 나는 120이었고 주량도 나는 고작 반병 정도인데

그는 두 병을 거뜬히 마실 수 있었고 그가 받은 교육에 비하여 영어 실력도 놀라웠고 같이 학교 教師이면서도 그의 호주머니가 늘 두둑했고 집에 가 보아도 비교적 윤택하게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사업적인 능력도 있었다. 그외에도 여러 점에서 나 보다는 월동했다. 내가 그 보다 다소라도 나은 점이 있다면 「고오스톤」 실력이나 압삭한 글재주 정도라 할까. 우리들 사이에서 그를 「張元老」라고 불렀다. 아마 이 別名의 原著者는 朴熙永氏인 듯한데 사실 어떤 의미로서는 원로에 해당할만도 하다. 그러나 이제 「장원로」는 갔다.

1965年 내가 구라파에서 학교로 돌아왔을 때 그와 나는 자리가 바뀌었다. 말하자면 내가 사서장이 되고 그는 내가 그랬듯의 강의에만 전념하게 되었다.

사서장이란 실무에서 벗어난 그는 교수실에 앉아서 연구와 집필에 몰두하는 듯했다. 그 무렵에 그는 많은 글과 번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본래 재주가 있고 노력형이기 때문에 그는 많은 업적을 남겼다.

얼마후에 그는 학교를 그만두고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과장으로 전직했다. 말 좋아 하는 사람들은 그때 그에게 대하여 구구한 억측들을 많이 했다. 그가 학교를 떠나면서 나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나는 좀 더 넓은 곳에서 일하고 싶다. 국립도서관에 가서 정책적으로 한국도서관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내 생리에도 맞고 또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국립도서관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도서관을 정책적으로 굴러 나가야 하겠다」 대강 이런 내용의 말을 하고 떠났다. 나도 그런 생각에 대하여 몇 마디의 의견도 말했지만 사람의 저마다의 人生管理에 그렇게 깊이 간여할 것이 못되기에 그의 꿈이 실현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 관청사회에 뛰어들어 그가 얼마만큼 자기의 뜻을 펼 수 있을가 걱정도 되었지만 그런대로 만족해 하는 것 같이 보였다.

옆에서 보기에든 늦게 공무원 사회에 투신한 그는 새로운 생활에 의욕과 보람을 느끼면서 일하는 것 같이 보였다. 자세히는 몰라도 그 당시의 白永受관장과 의 기상통하여 국립도서관의 中興을 도모하는 듯이 보였다. 사실상 도서관법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의 영향력이 컸을 것이다. 공공도서관을 단합시키고 방향 감각을 잡는 것도 그 무렵이 아니었던가 기억된다. 그러면서도 간혹 사서과장실에 가보면 원고봉치가 놓여 있는데 집필에도 정열을 쏟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몇 해 지나는 동안 관장도 바뀌고 관내인사이동도 있어서 그랬는지 초기의 정열이 차차 식어가는 듯한 인상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아무래도 그 세계는 그 세계 나름대로의 특유한 생리가 있는 듯하며 공무원으로 잔뼈가

얕지 않았던 그로서는 칩사리 동화할 수 없는 면이 있었을 게다.

마침내 그는 몇해 전에 그곳도 그만 두고 KDI의 도서실장으로 취임해 갔다. KDI에 가서는 매우도 좋아졌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였다. 그가 그렇게 일찌기 세상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KDI 도서실이 정년 은퇴할 때까지의 마지막 직장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그의 일련의 전진과정을 볼 때 왕성한 그의 의욕을 짐작할 수 있다. 현명한 그는 자기의 직장이나 상관 동료에 대한 불평을 밖에 나와서 할 사람이 아니지만 그와 늘 가까이 있는 우리들 눈에도 KDI 도서실에서 일하는 것을 딱 만족해 하는 것 같이 보였다. 英美目錄規則같은 방대한 번역을 해 치운 것을 보더라도 그는 분명히 일꾼이었다. 몇일 전에 中央大學의 鄭駟謨教授의 서재에서 그 冊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쉬지 않고 일한 사람인가 새삼 감탄하면서 이렇게 몸을 혹사한 것이 그의 생명을 줄인 원인이 된 것이 아니냐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었다. 세상을 떠나기 몇해 전부터는 IFLA회의 때문에 또 한번 그의 정열을 불태우는 듯하였다. 그러던 그가 IFLA회의도 못보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으니 더욱 가슴 아픈 일이다.

한양대학에 있던 김태울氏 그리고 남영우氏가 세상을 떠나고 또 이제 張一世氏도 하직하고 보니 도서관계의 한구석이 비어버린 듯한 서글픔이 느껴지곤 한다.

사람은 누구나 헛점이 있게 마련인데 張一世氏같은 才士인 경우도 것처럼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 경우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헛점이 보일 때가 있다. 그러다 보니 그에 대한 비방이나 오해가 전연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것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속성이기도 하다. 그도 때로는 오해도 받고 비난을 받은 일도 더러 있었겠지만 그는 분명히 우리나라 도서관계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심하지는 못할 것이다. 도서관계에 투신한 때가 1950년대로 볼때 그는 약 25년 동안 도서관계에서 활약한 셈이다. 사람의 일생으로 볼 때 또 이처럼 일찍이 세상을 떠난 경우 25년은 결코 짧은 것이지만 그동안 그의 저술과 실질적 활동을 보면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나는 때때로 다음과 같은 상념에 젖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만약 朴奉石先生이 6·25때 납치되지 않고 계속 우리 도서관계에서 일을 하였더라면 한국의 도서관이 지금보다는 훨씬 발전되었고 정리되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다. 張一世氏가 떠난 지금 생각되는 것은 좀 더 오래 살았더라면 그 자신을 위해서나 도서관계를

위해서 더 보람이 있었으리라는 아쉬움을 가지게 된다. 냉정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란 그런 아쉬움을 남긴 채 가는 것이며 또 그런 아쉬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도 모를 일이다.

참으로 오랜 교유였다. 그나 그리고 나도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헛점과 결점을 지닌 인간이기에 그 오랜 세월동안 때로는 언짢은 일도 있었겠지만 단 한 번도 얼굴을 붉혀 본 일이 없이 지내왔다. 고운정 미운정 다 든 그가 떠난 뒤 내 생활에 한가지의 변화가 생겼다. 자랑할 일은 못되지만 나의 교유관계는 도서관계와 문단이 반반이다. 張一世氏가 하직후 나는 도서관인들과 만나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 그는 분명히 우리들을 뚫이게 하는 구심력이었던 모양이다.

「여보, 한잔 합시다」

「여보 동양화 한판 합시다」 그는 여보란 말을 잘한다. 남의 부인에게도 여보라 해서 상대방을 당황케 하는 일도 있었다. 이제 그런 전화도 없어졌다. 그가 떠난 후 가족들의 생활도 걱정이 되지만 그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였던가, 우리가 문상을 가서 느낀 일인데 張一世氏의 형제분들이 참으로 우애가 두터운 것을 보고 부러워한 일이 있고 또 자세히는 모르지만 따님들도 다 출가해서 잘 살고 있다고 듣고 있어서 다소 마음이 놓인다.

평안도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향이지만 그 집에 초대 받을 때 언젠가 상다리가 불어지도록 음식을 많이 차리고 자꾸만 권하던 일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저 세상이라는 것이 있다면 생전에 가장게 지내던 친구들이 언젠가 다시 오손도손 모여서 소주를 들면서 정담도 나누고 화투도 치며 이승에서 다 못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고 장일세씨의 명복을 빌며 남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기를 바라면서 추석날 밤에 이 글을 적는다.

多情多感한 그를 追慕하며

朴 熙 永
東國大圖書館司書課長

「圖書館」이란 석자를 쓰고 닦아서 이것을 빛내고자 黃金같은 青春을 바친 張先生!

韓國의 圖書館發展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쓰라림과 피로움을 무릅쓰고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앞장 서서 勇敢하게 일 하시던 張先生!

멋지게 살고자 있는 힘을 다하여 아름다움과 부드럽게 사시던 張先生! 이미 張先生은 虛無하게도 우리

와 幽明을 달리하셨음은 아무도 믿을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었으며 아깝다기 보다는 오히려 분하기 限이 없으며 생각할 수 없는 쓰라림을 우리에게 안겨준 事實이 되었다.

5월31일부터 6월5일까지 서울에서 開催되었던 IFLA會議를 日前에 두고 作故하신 張先生의 無情을 우리들은 理由없이 받아야 했던 悲報였고 앞이 캄캄하였던 일이 있었는데 이會議에 參席한 外國圖書館의 여러 指導者들도 張先生이 안 계심을 甚히 서운해 하고 아쉬워하였고 어떤 代表는 私談하는 席上에서 IFLA會議場에서 IFLA서울 開催를 爲하여 애쓰신 張先生의 冥福을 비는 默念을 올리자는 建議를 하고 싶은 心情이라고 까지 말하는 분이 있었던 만큼 張先生은 여러나라 圖書館人에게 알려져 있었던 자랑스럽게 생각되는 同志였었는데 어찌하자고 우리들에게 쓰라림을 주었는지 가슴만이 아플 뿐이다.

本人이 張先生과 처음 만난것은 1956年頃으로 記憶되니까 20年의 知己가 되는 셈이다. 本人이 梨大圖書館에 勤務하고 있었을 때였다. 그 當時는 美國의 여러 機關으로부터 여러 名目으로 援助되는 圖書가 各 圖書館에 종종 寄贈되어 왔었는데 한번은 文敎部가 몇몇 大學에 美國으로부터의 寄贈圖書를 分配하여 주어서 이를 받아다가 整理코자 하였는데 어떤 美男의 青年이 나타나서 文敎部로부터 分配된 圖書中一部가 錯誤로 梨大圖書館에 오게 되었는데 그 錯誤로 分配된 圖書는 高大의 것이니 내 주었으면 한다고 圖書를 찾으려 왔다. 바로 그분이 張先生이었는데 이 일이 因緣이 되어 張先生과 親交를 맺게 되었던 것이다. 첫눈에 이분은 圖書館界 앞날에 큰 일을 해 주실수 있는 분이 確實하다고 생각되기에 여러 이야기를 주고 받았는데 이야기의 大略을 추린다면 當時 張先生은 高大圖書館에서 洋書를 整理하고 있었고 勤務한지 몇년이 지났다고 하며 張先生은 圖書館에 關한 研究를 하고 싶어하며 언젠까지나 圖書館業務에 從事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말도 잘하고 모든 것이 分明한 분으로 느꼈으며 감히 나 따위는 比할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되었다. 이 분은 한개의 圖書館만을 爲할 분이 아니라고 直感하였다. 韓國 圖書館界發展을 爲하여 큰 일을 해 주실분이라고 거듭 거듭 여겨져서 몇몇이 私를 버리고 일하고 있는 圖協을 中心으로하는 모임에 나와서 손 잡고 일하여 줄것을 請한바 本人이 할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最善을 다 하겠다고 約束을 하고 헤어졌다. 圖協이 發足한지 얼마되지 않았던 때였고 또 圖書館界의 役軍도 몇명 되지 않았던 때여서 한사람이라도 더 일꾼을 규합하여 힘을 크게 하고자 할 때였으므로 役軍의 수가 는다는 일은 甚히 기쁜일이었고 든든한 일이 되었

다. 이것이 張先生과의 첫 相面이었다.

當時의 圖協 專門委員들은 하루 終日 草創期의 各自가 勤務하는 圖書館에서 시달림을 받고 저녁에는 食事도 하지 않은 몸으로 거이 每日과 같이 뭉여서 分類表, 目錄法, 圖書館法, 圖書館用品等等에 對하여 談論하던 때였었는데 勿論 會議費라든가 車馬費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었고 또 委員들은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오직 使命感으로 일만을 하고있었는데 圖書館을 爲하여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한사람이라도 나타나서 힘이 커지기를 바라던 때였었다. 張先生과 헤어진 그날 저녁에 恒常 우리들이 뭉이는 場所(主로 國會圖書館이었는데 때로는 個人집에서도 뭉였다)에 나가서 여러 委員들에게 高大에 張一世란 분이 계시는것을 發見하였는데 함께 일하자고 動議하여 異議없이 함께 일할것을 決定하고 다음날 부터 委員으로서 圖協을 中心으로 함께 일하게 되었던 것이다.

圖協이 外國援助機關에 對하여 援助要請한 圖書館員 教育問題가 結實을 보아 當時文敎部에 있었던 피바디 教育使館團에 圖書館部門에 對한 顧問이 생기게 되었고 따라서 延大에 圖書館學科가 新設하게 되면서부터 韓國의 圖書館界는 새로운 方向이 決定되었고 活氣를 띠우게 되었다. 圖書館教育의 一環으로 美國피바디 師範大學에 圖書館學을 專攻할 留學生도 가게 되었는데 張先生은 柳永鉉先生(現在 美國議會圖書館勤務)과 함께 美國留學의 第一番打者가 되었다.

張先生은 바른 美國留學生活을 하고 있으면서도 國內 新聞에다 가끔 寄稿하였고 또 녹음해서 放送局에 보내주어 國內에다 新聞이나 放送을 利用하여 美國圖書館界의 消息을 傳하여 주는 한편 一般에게 圖書館을 바르게 認識할 수 있도록 啓蒙하는 일까지하였던 精力家이었다. 美國留學을 마치고 歸國한 張先生의 第一聲은 한나라의 圖書館이 自己나라 固有의 分類表가 없이 다른 나라의 分類表를 그대로 使用한다는 일은 至極히 羞恥스러운 일이다. 우리도 하루 速히 우리의 分類表를 비롯한 여러 整理道具를 우리의 힘으로 만드러서 使用해야 한다. 그러니 速히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힘을 總集中하여 우리의 것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研究하다가 異狀한 일로 中斷되었던 分類表를 비롯한 여러 道具들의 編纂作業을 다시 着手하는 힘과 계기를 만들게 해주었는데 이는 오로지 張先生의 歸國第一聲에서 새로운 勇氣를 얻게 되었고 많은 資料를 가지고 歸國한 張先生을 마지한 우리들은 계속하던 事業에 活力素를 넣은것 같았다.

張先生이 梨大에 게실때였는데 國立圖書館으로 갈것이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었다. 本人은 北阿峴洞으로 張先生宅을 찾아 여러 時間을 소주로 목을 추기면서

이야기한 일이 있었다. 한나라의 國立中央圖書館이 어떻게 運營되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다른 圖書館 發展에도 주는 影響이 큰 것인데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우리들로 부터 멀리에 있는데 그 理由에는 여러가지를 들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많은 人材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張先生이 가겠다는 것이었다. 張先生은 私生活을 犧牲하면서 國立을 國立으로서 方向과 姿勢를 바로 잡는데 힘을 기울이기 爲하여 國立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무엇보다도 國立과 같이 큰 圖書館의 運營이나 管理에는 特別히 圖書館學을 專攻한 사람이 參與해야 한다고 力說하면서 將次 國立中央은 館長以下 모든 館員이 圖書館을 專攻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發展한다고 말하면서 우선 몇몇의 人材를 규합하겠다면서 이것저것 背寫眞을 필치면서 이야기하였던 것이다. 國立은 張先生이 司書課長으로 부임한 後 차츰 國立으로서의 方向이 設定되었고 따라서 士氣를 굳히면서 면모를 갖추게 되었던 것으로서 지금의 國立으로서는 아마도 張先生의 功을 醵수는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當時의 國立은 참으로 먼곳에 있는 것으로 느껴졌는데 張先生이 옮겨 가면서부터 가까히에 있게 되었고 또한 가까히에서 많은 일을 함께 하게 되었다. 本人은 自然人 한사람의 힘이 이만큼 클수 있을까 하고 張先生의 힘이 너무나 큼에 놀랐었고 그러기에 張先生님을 자주 頂도록 努力하였던 것이다.

張先生은 언제나 多情多感한 분이였다. K.D.I에 게실때에는 每週月曜日이던 依例히 週末을 즐겨히 지냈느냐 週初의 問安을 한다고 電話를 주셨다. 電話를 받고 나서는 來週에는 꼭 本人이 먼저 問安電話를 하겠노라고 마음먹고도 다음 週의 週初가 되면 張先生으로부터 電話를 받게 된다.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도 張先生은 多情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可能하다고 머리가 숙어진다. 個人的인 일인건 公的인 일인건 間에 무슨 일인건 생기면 電話를 걸고 약간만 운을 떠면 당장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하였다. 張先生이 生存하고 계셨더라면 그 사이에 여러번 洪陵에 가게되었을 것인데 그후 한번도 못갔음을 생각하니 더욱 張先生이 그리워진다.

張先生은 本人과 「韓國著述者辭典」을 共編하자고 約束하였었다. 그간 資料를 蒐集한것이 있는데 두사람의 힘을 합쳐서 만든다면 보다 훌륭하게 만드러 내질것이라면서 그러나 이것을 着手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變을 당하였었다.

張先生은 몇개의 말을 남겨 주었는데 張先生의 人生觀이랄까 生活觀은 무엇이던 가리지 않고 잘 먹고 무엇이던 남이 하는 일이라면 다 할 줄 알아야하고 健康

하고 유쾌하게 누구에게나 부드럽게 대하여 살면서 평
 and스러운 家庭을 꾸려나가는 일이라고 말한 일이 있었
 다. 張先生은 自己가 생각 하는대로 살고 잔 사람이라
 고 하겠다.

한마디로 아쉽고 그리운 사람이다.

國立中央圖書館 時節을 回顧하며

정 병 완
 국립중앙도서관 열람과장

張一世先生의 국립중앙도서관에서의 근무기간은 19
 66년 6월부터 1972년 9월까지의 약 6년 4개월간으로서
 司書課長과 指導協力課長職을 맡아 보시었다.

張先生은 나보다 약 9個月이나 먼저 국립도서관에
 오셔서 근무하고 계셨기 때문에 梨大圖書館學科의 敎
 授職에서 국립도서관으로 옮기신 직접적인 동기는 잘
 알수 없으나 아마도 '도서관의 최일선이라고 할수 있는
 국립도서관에 몸바쳐 보람되게 일하고자 하는 마음에
 서였다고 생각된다.

내가 알기로는 오랜 도서관의 司書생활을 벗어나 大
 學교단에서 얼마동안 생활하다보니 활동적인 성격에
 다 對人관계가 많고 보다 활동적인 國立圖書館에, 아
 니 보다는 1963년에 公布된 圖書館法에 힘입어 보다
 순수한 마음으로 용약 公共圖書館의 큰집이라고 할 수
 있는 국립도서관으로 오셨다고 생각된다.

내가 서울대와 국회도서관생활에서 벗어나 고생길이
 내다보이는 국립도서관으로 옮긴것도 아마 張先生과
 비슷한 실사에서였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그 후 우리
 의 처지를 놓고 종종 이야기하곤 하였다. 「公共도서관
 이 사는 길만이 한국의 도서관이 사는 길이다」고. 이
 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소감이고 신념임에는 틀림
 없다. 1965~67년는 한국도서관계에 그러한 서광과 움
 직임이, 아니 보다는 숨쉴 수 있는 맑은 공기가 조성
 되고 있었던것 같다.

그리고 당시 張先生 같으신 도서관계의 증진을 국
 립도서관으로 움직이게끔 만든 보다 큰 요인은 국립도
 서관의 관장으로 계시던 白永受館長의 열의와 권고
 에 기인하였음을 두말할것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도서관원이라면 누구나가 열려하고 소원하던
 도서관법이 공포되고 참모습의 국립도서관을 재건하고
 저 여러모로 노력하는 관장을 모시고 소신껏 보람되게
 일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러한 마음갖김으로 국립도서관에 오셔서 몸바쳐
 일하시던 張先生도 그동안에 여섯분의 館長을 모시
 다가 불과 6년 4개월만에 실의에 차 타기관으로 옮겨
 가셨으니 그 동안의 선생님의 노고와 심사가 어떠하였
 을가는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된다.

張先生이 국립도서관의 司書課長職을 맡아 오시고
 나서 任用과정에서 직급과 직책을 놓고 상당한 물의와
 진통이 있었던 것 같다.

국립기관의 과장이면 3甲의 司書官으로서 補任해야
 되므로 애당초 그렇게 약속했던 모양이나 任命되고 보
 니 3乙의 司書官補에다 條件附에 시보기기간까지 붙고
 말았든 것이다. 이렇게 되고 보니 자연 선임 사서관과
 의 선후임문제에 까지 신경을 쓰게 되고 두분 다 몹시
 마음이 괴로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승진기간
 인 3년이 지난 1969년 6월에야 사서관 (3甲)으로 진급
 되고 正式으로 課長發命이 내렸다.

이렇게 시작된 張一世先生의 국립도서관에서의 생활
 은 6.25動亂後 침체될때로 침체된 국립도서관에 새로
 운 활기소적 존재가 되었음은 말할것도 없다. 힘차게
 새로히 움직이게 된 국립도서관의 벽찬 업무에다 梨花
 女大의 강사와 도서관학회의 理事업무에다 원고집필에
 다 그야말로 바쁜생활을 근거로서 일하셨다. 張先生
 의 국립도서관에서의 생활은 단지 국립도서관의 사서
 과장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는 도서관학자로
 서 전국적인 존재였다고 말함이 옳을것 같다.

국립도서관에서의 張先生의 重要활동사항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수 있을 것이다.

- 公共圖書館館長會議制 制定(66年)
- 圖書館憲章 制定(67年)
- 相互貸借制度 制定(68年)
- 外國圖書綜合目錄 실시(68年)
- 納本制度의 확립(67年)
- 圖書館學研究會 조직(69年)
- 국립도서관분류표시안 制定(70~71년)
- 公共圖書館시범도서관제도 制定(71년)
- 司書實務講習 실시(71年)
- 世界系譜學會會議 참석(70年)
- 公共圖書館部會 組織(69年)
- 古書目錄 編纂(70~72年)

내가 아는 張一世先生은 博學多識과 多樣한 취미를
 갖고 있었으며 모든면에서 ——직장이나 가정 그리고
 對人관계에 있어서—— 調和와 中庸을 잘 지킬수 있는
 人間이었다고 생각된다.

張先生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면 나와 같은 느낌을
 가지는 분이 많을것으로 생각된다. 그분과의 국립

도서관에서의 생활은 公的인 면에서 보다 私的인 면에서 가까웠다. 그분과의 친근감은 너무나 人間的인 관계가 보다 깊었다고 생각된다. 그분은 확실히 멋 있는 사나이였다. 멋을 알고 멋을 즐길 줄 아는 사나이였다. 그러나 결코 멋 있는 나그네 일수는 없었던 사나이가 人間 張一世 선생이었다고 나는 생각된다.

비나리는 무교동 뒷골목의 맥주집 배운싸인 불빛 아래서 기타를 들고 옛노래를 부르던 사나이, 張世翊으로서 밤이 깊어 가는 줄도 모르고 지새우던 사나이, 밤의 南山기슭 「394.3」을 찾아 헤메이던 사나이, 바둑판을 놓고 한알의 바둑알도 양보할 수 없었던 사나이, 아무리 바빠도 누구의 청이든 이를 싫다지 않고 대하던 사나이, 싫은것이 없던 사나이, 이러한 對人관계에서 누구나가 人間的인 따스함을 느끼게 하는 人間이 張一世 선생이었다. 人之常情이 라든가. 이 땅에 영원히 머무를수 없는 人生의 만남. 그사나이라도 이제는 역사의 나그네가 되고 말았으니.

언젠가 여름 입해문고를 강능의 경포대 해수욕장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입해문고운영에 참가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다 느끼는 일이지만 직장동료들이 여름휴가를 얻어 동료들이 근무하고 있는 입해문고로 찾아오는 직장친구들처럼 반가운 손님은 없다. 그래서 어느 때에는 약 30명 가까운 식구가 입해문고 숙소에서 여름 바닷가의 밤을 즐긴일도 잊을 수가 없는 추억이다.

그러한 어느 날의 입해문고에 “수고들 하오” 하며 빙그레 웃으면서 나타난 사나이는 張선생이었다. 물론 그림자 처럼 師母任이 따라 나타난것은 두말할것 없고, 그리하여 밤에는 張선생과 바닷가 선술집에서 명회접시를 놓고 술잔을 기울리며 밤이 깊어가는줄도 모르고 지나다 이른날 새벽 먼동이 틀무렵 낚시대를 나누어 매고 경포호에 새벽 낚시를 갔었다.

붕어 낚시라면 나는 프로로 자칭하던터에 張선생도 옛날에는 (국민학교 시절?) 시골에서 마을붕어의 씨를 말렸을 정도로 프로였다고 자칭한다. (하기야 모든 일에 張선생은 프로적인 면이 없지도 않았지만 낚시터에 도착하여 배를 타고 호심에 들어 張선생이 앉을자리 “座臺”를 잡아드리고 약 20m 떨어진 곳에도 자리잡고 낚시대를 다리우고 얼마지나서의 일이다. 옆좌대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기에 돌아다 보니 먼 거리에서도 분명히 큼직한 붕어란놈이 공중썩커스를 하며 張선생 품으로 안기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제까지 3,4년을 여름이면 잊지 않고 경포호를 찾아 붕어님들과 인사를 나누어 얼굴을 익히고 그만큼 경성을 놓았건만 그놈의 붕어가 눈이 멀었지 왜 하필이면 張선생과 데이트하고 말다니. 너무나 억울

해서? 「그놈 눈이 멀지 않았소?」

「아니. 눈은 쌍가플에다 입술도 아주 예쁘게 잘생긴 친하일색이요」

「그럼 그놈이 바람이 단단히 났군」

「역시 옛날 솜씨는 속이지 못하는군」

이것이 張선생과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갖었던 낚시의 잊을수 없는 추억의 한 토막이다.

나는 요사히 내가 마지막 본 張선생의 얼굴을 종종 생각할 때가 있다. 내가 張선생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도서관협회의 IFLA 서울大會에 대비한 理事會석상에서였다.

사람은 누구나 有心所作이라고나 할까 그날마다 자기의 얼굴을 조각하면서 人生을 살아간다고 하였다. 鬪病後의 張선생님의 얼굴에는 人生의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신비스터리만치 환한 빛이 감돌고 있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안도의 빛, 人生에 대한 즐거움과 정다운, 그리고 未來에 대한 밝고 맑은 포부가 가득한 그러한 얼굴을 갖고 있었다. 그얼굴에서 나는 張선생의 앞날에의 무한한 조용함과 人生에 대한 福된 회열의 백박을 느낄수 있었던 것 같다.

한없는 아쉬움을 간직한 張선생과 우리들의 만남이었으나 張선생이 남겨놓고 가신 작으만한 유산이나마 마음속 깊이 고히 간직할가 한다.

不屈의 意志

—故 張一世先生의 얼을 새기며

玄 圭 變
國立中央圖書館司書官

眞實로 죽음에 이르는 길은 絶望으로 빠져드는 것이다. 키엘케골은 이렇게 말한다. 죽음은 결코 비켜지지 않은 路程이다. 그러나 그것을 認識함은 生의 참다운 肯定이다. 다만 絶望만이 죽음이다. 우리는 故張一世先生님의 人間觀에서 이 眞理를 直視할 수 있다. 언젠 그분에게서 절망을 느껴 본적이 있는가. 언젠 그분의 生活에서 悲嘆과 우울을 느낀적이 있는가.

언젠가 그분은 나에게 이렇게 말한적이 있다.「왜 그랬는지 지금도 나는 잘은 몰으겠으나 나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그런 決心을 하고 있오 아마도 高大圖書館에 在職하고 있을 때라 생각되오. 當時 나는 남들과 같이 많은 좌절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 왔고, 나에게서는 살아 나갈 길에 對한 막연한 不安과 해결되지 않는 산적한 問題들로 失意에 빠져 들었던 것이오. 그날도 나는 벤취에 앉아 시름없이 점심시간을 보내고 있었오. 한테 어

던 女學生이 들고 있던 꽃을 길바닥에 팽겨치고 갔오. 나는 無心히 그꽃을 바라 보았오. 가련하게도 그것은 다 시들어 버린 장미였오. 그 다음에 지나가던 學生은 그 꽃을 밟고 지나갔다. 아무런 연민조차도 없이 당연한것 같이 밟아 버리더란 말입니다. 나는 그 때 문득 내 自信을 생각해 보았오. 내가 바로 저 장미, 시들어 버린 저 꽃과 같은 것이 아닐까 그때 나는 벌떡 소리 지르고 싶었오. 나는 아니다. 내가 결코 시든장미와 같이는 될수 없다. 失意하는 것은 가련할른지는 몰으나 그러나 그것은 바로 죽엄이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 쓸데 없는 것이다.」그날 以後 張先生님은 아침 4시에 이리나 當時에는 英語를 하루도 빠지 않고 공부하시었다. 우리가 張先生의 피바디대학 留學이 어떤 행운의 소산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옳은것이 아니다. 그분은 獨學으로 英語를 完成된 自信의 知識으로 만들고자 무한 노력을 하시었던 것이다.

그분은 누구에게도 失意와 좌절을 보인적이 없으며 그것은 自信의 굳건한 人生의 길로 절망을 절단하여 버렸던 確信의 표현이기도 하였다.

崇義專門에 강단을 맡으면서도 學生에게 준 가장 큰 敎訓은 어두운 곳을 불뜸없는 끊임없는 成長 그것이였다. 아침 8시부터 特講을 맡으시었다. 그분에게는 이미 익혀진 生活이었으나 學生들에게는 어려웠다. 그러나 미처 일개월도 되기 전에 學生들의 熱意는 한명의 결강자 없는 전원 출강의 상태로 변해가고 있었다. 매월 한번씩은 새로 出刊된 圖書에 대한 評價를 하시었다. 學生들의 보다 넓은 識見을 爲하여 그간에 나온 새로운 지식을 소개했던 것이다. 豐饒한 人間의 敎養만이 그 사람의 專門知識을 함양한다는 것이 張先生의 지론이었다. 이러한 張先生의 崇義敎壇도 결코 순탄만 한 것은 아니었다. 때로 失望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를 바라만보지 않을수 없었던 때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단 한번도 그런 내색조차 하신 적이 없었다.

國立中央圖書館에서의 生活 역시 順調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上命下復의 法律의意味만이 強調되는 공적 조직속에서 張先生의 인내력과 밝은 精神이 아니었으면 도저히 감당할수 없을 만큼 어려운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나는 張先生님이 저 有名한 著者記號論爭時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익히 알고 있다. 當時 張先生은「조급하나 서두루지는 않는다」는 침착한 자세로 이 論爭에 임하였었다. 그러나 매일 같이 山積하는 業務를 처리하고 나면 저녁 시간 불과 2,3時間밖에는 活用할 時間이 없었다. 한편으로 應答은 時間的으로 많은 간격을 둘 수 없을 만큼 高調되어 가고 그 격함이 더하여가고 있다. 先生은 두가지중 하나를 擇하여야 했다. 장기휴가를 얻는 길과 아니면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있

는 시간을 최대로 활용하는 길이었다. 後者를 택한 張先生의 입장은 어떻게 본다면 公職生活者의 비애였다. 매일같이 저녁 늦게야 퇴근하였었다. 점심시간 역시 통히 出他하지 않았었다. 하루도 빠짐없이 會議는 열리고 있고 그것은 當時 張課長님으로서는 결코 빠져서는 안되는 會議였다. 이러한 가운데 張先生의 答辨書는 作成되었다. 後日 張先生은 이렇게 말한적이 있었다.

「이 論爭은 유쾌한 것은 아니나 결코 不快한 것이아곤 말할수 없다. 이것은 나 自信의 意志의 싸움이었고 時間과의 싸움이였다. 심지어 이로 인한 公職生活의 어려움을 철저히 인식하는 계기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어려웠던 國立圖書館에 張先生이 오게 된것은 뚜렷한 目的이 있어서였다. 그때 나는 우연인지는 몰라도 張先生님의 제의로 덕수궁 분수가 보이는 벤취에 앉아 이야기 할 機會가 있었다. 나는 그때 단연코 反對의 立場에 서서 張先生님의 移職을 만류하였었다. 그때 張先生은 내려조이는 太陽이 부산히 흠어져 번지는 물질을 바라보며 말하였었다.

「나는 1957年 美國에서 이리로 올때 船便으로 왔오. 그때 나는 망망한 大海를 바라보며 홀로 일주일을 지낼수 있는 기회를 갖었오 나는 저녁때면 으레히 서쪽으로 난 간판에 올라가 태양이 막바로 바다와 합쳐지는 觀景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곤 했지. 그때 나는 이렇게 혼자되 뇌이곤 했오. 나는 지금부터 한국의 도서관을 爲하여 兪세계 일할 것이다. 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삼한 자루조차없이 맨손으로 뛰어드는 火田民같이 나는 오로지 정신만 갖고 뛰어드는 것이다. 라고 말이오. 그 후 이화대학에 봉직하면서 저자기호표, 학교도서관운영지침 등 몇가지 저서도 썼으나, 지금 내가 敎育만 맡아가지고 과연 우리 도서관계에 얼마만한 보탬이 될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오」

「그래도 않됩니다 張先生님이 國立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거듭되는 좌절과 끝없는 고통뿐입니다」라고 나는 강력히 반대하였었다. 그분은 차분히 다시 말을 하였다. 「국립도서관은 이 나라가 갖고 있는 유일한 國有의 圖書館이며 唯一한 營造物로서의 圖書館이요. 그것은 만일 도서관 정책이 있다면 또한 유일한 政策部署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굳건한 發展을 거듭하는 國立圖書館이 아니라 나약하기 그지없이 방황하는 국립도서관을 갖고 있고. 나는 여기에 또한번 火田民이되고자 하는 것이요. 가진것이라곤 1957年 그때 船上에서 갖었던 정신 그것 뿐이오」

우리 圖書館界는 初期의 우리나라 圖書館의 發展을 爲하여 獻身的인 노력을 하였던 많은 先驅者의 功過에 대하여 너무도 비열하리만치 인색한 評價를 하곤 한다. 初創期 不毛의 大地에 한푼 한푼 정성을 드려 키워왔던

그들의 結實은 이제 그들을 必要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아무도 國立中央圖書館에 오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곳에 뛰어난 張先生님의 勇氣는 오직 火田氏이 되어 모든 고난을 겪어 보겠다는 기적 정신이 없다면 이루어 질수 없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精神을 배워야 했던 것이다. 그분은 이렇게 비유하여 말한 적이 있다. 「산에 한그루의 나무가 서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나무는 자기가 먹고 남은 물은 산 밑에 있는 많은 다른 나무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그것이 先輩라는 것이 되겠지. 그러나 그것만으로 先輩가 될수있는 것이 아니오. 그 나무는 아래로부터 위로 올려 주는 참신한 바람이 없다면 아마 살지 못할 것이요. 이것이 先後輩의 關係이자 年長者와 年소자의 관계이지. 오늘날 우리 도서관계는 이것이 없어요. 말하자면 아무런 질서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먼저 배울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분은 이 도서관계를 爲하여 初期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이만큼이나마 끌어 왔던 것이다. 그분의 정신은 圖書館人 모두가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

目錄學에 對한 그분의 熱意를 나는 익히 알고 있다. 끊임없이 變動되는 目錄規則의 完全한 파악이란 웬만한 끈기와 노력없이는 不可能한 것이었다. 그러나 張先生님의 열의는 이 정도의 근면성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美議會圖書館에서 發行되는 目錄規則關係資料가 처음부터 정밀히 수집되고 또 분석되었다. IFLA에서 發行되는 諸般資料 역시 정확하게 수집되어 나아갔다. 後日 그분의 藏書를 整理하는 機會가 있었던 筆者는 그분의 目錄學關係資料의 수집에 거듭 놀란 적이 있다. 이러한 노력이 그분으로 하여금 韓國目錄規則의 制定을 擧게 하였으리라 事實 우리의 目錄規則은 그분의 힘으로 制定되었던 것이다. 그분은 韓國目錄規則이 日本의 그것이나 美國의 規則을 모방한 原則없는 混血兒라는 一部の 비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곤 했다. 「問題點이 있는 目錄規則의 制定은 결코 아무것도 없는 空白狀態의 理想的 論爭보다는 월등하게 나온 것이다. 各國에 채택된 기본원칙중 표준이 되는 기준을 채택한것이 主體性의 妨礙될 수 없다. 또한 問題點의 發見도 一定한 線型을 設定한 때 비로소 그 上下로 問題가 생겨 發見되게 되는 것이다. 나는 이 비관을 爲하여 즉 問題點의 설정을 위하여 달게 희생할 수 있다」라고 張先生님의 學問이 安易에 定着된 것이라느니 理論이 결여된 急造建築이라느니 하는 見解가 있었으나 이것

自體부터가 그분의 희생이 아니었던들 不可하지 않았겠는가. 새삼 그분의 희생적 정신에 머리 숙여진다.

英美目錄規則의 번역판에 대한 노력 또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번역은 저술보다 몇배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더구나 目錄規則과 같은 法條文式 表現은 더욱 까다롭다. 英美目錄規則은 그 分量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각종 예시가 많아 인쇄시에도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노력하지 않는한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이책의 번역을 선뜻 착수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張先生님은 이를 과감히 착수하여 一年餘에 걸친 刻苦의 노력끝에 完譯하셨던 것이다. 아무도 착수하려 들지 않는 것이었으며 아무도 과감히 뛰어들지 않은 사업이었다. 더구나 充分한 보상이 뒤 따르는 것도 아니었다.

금년 봄 나는 그여히 그분의 병실을 찾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당시 張先生님의 生存은 기적적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분의 希望은 없어져 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醫師도 친지도 또 圖書館人들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분의 회복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빨라나는 그곳에서 그분의 고통하지 않는 정신을 또 한번 생생하게 볼수 있었다. 회복되었던 그대에 張先生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나는 피로거나 아프거나 하는 苦痛을 당하지 않았어. 다만 피곤하고 졸음이 오더군 내가 정신을 차릴수있을 만큼 되었을때 부터 나는 회복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 이러한 確信은 그분의 기적을 이룩하게 하였던 源泉이었던 것이다. 新世界페스트랑에서 그분과 接심을 갖었던 것이 나에게 마지막 相面이었다. 그대에도 나는 그분의 모습에 한가닥의 실의나 병색조차도 느끼지 못하였다. 그분에게 결코 시들어버린 장미와 같은 애담은 없었던 것이다. IFLA대회를 맞는 그분의 태도는 자못 진지하였으며 그대에 發表될 論文에 대한 소상한 내용을 말씀하시었다. 그분은 絶望할 時間이 없었던 것이다. 줄기찬 努力과 誠實한 삶만이 全部였으리라.

이제 天壽를 누리지 못한 故人은 이곳에 없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이 아니었다. 그의 肉身만이 사라진 것이지 결코 죽임으로 이어지는 不存在은 아니다. 그분의 가슴에 남아있던 精神은 아직도 우리의 가슴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한낱 火田氏이 되겠다던 그분의 생각은 이제 더욱 우리의 마음에 깊이 간직되어 있기 때문이다.

故 張一世先生 略歷



- 1919년 8월 24일 진남포에서 출생하다.
- 1933년 진남포공립상공학교에 입학하다.
- 1938년 일본공립전문학교에 입학하다.
- 1940년 일본공립전문학교 2년을 수료하다.
- 1948년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사서가 되다.
- 1955년 국민대학 정치학과에 입학하다.
- 1957년 미국 조지 피바디대학 대학원 도서관학과에 입학하다.
- 1958년 미국 조지 피바디대학 대학원 도서관학과를 1년 수료한 후 귀국하여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정리계장이 되다.
「도협월보」의 편집위원 겸 기술위원회 기술위원이 되다.
국민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하다.
- 1959년 「學校圖書館運營法」을 著述하다.
- 1960년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 강사겸 도서관 사서장이 되다.
- 1961년 한국도서관협회 이사로 피임되고 「韓國人 著者記號表」를 만들어 내다.
- 1962년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 조교수가 되고 「美國議會圖書館記述目錄規則」을 번역해 내다.
- 1963년 한국도서관협회 목록분과위원장이 되어 한국목록규칙 제정에 주동이 되어 활동하였고 문교부의 도서관운영담당 장학위원이 되다.
- 1964년 「學校圖書館運營指針」과 「東洋書著者記號表」를 만들어 내다.
- 1966년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과장이 되다.
- 1968년 「韓國目錄規則解説」을 著述하고 「非圖書資料의 整理」를 編纂 著述하다.
- 1969년 사서관으로 승진되어 국립중앙도서관지도 협력과장이 된다.
「公共圖書館運營」을 번역 출판하다.
- 1970년 국립중앙도서관 서기관이 되다.
- 1971년 한국도서관협회사로 선출되다.
- 1972년 한국개발연구소 도서실장이 되다.
- 1973년 한국도서관협회 전문위원회 전문위원장이 되다.
- 1974년 「英美目錄規則」을 번역 출판하다.
- 한편 50년대 부터 도서관 관계 전문잡지인 「도협월보」 「도서관」 「국회도서관보」에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기타관계 잡지에도 논문을 다수 발표하였다.